

'수사 축소·비밀 누설' 사건 브로커 후속 재판 '속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탐모씨 같은 날 피고인·증인 연이어 출석 "수사정보 사전 인지" 증인 연루 경찰은 부인...하반기에 선고

정점은 각기 다르나 가상자산 투자사기 기법으로부터 비롯된 '사건 브로커' 후속 재판의 1심이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유신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45) 경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60) 경정과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퇴직 경무관 장모(60)씨의 부탁으로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탐모(45)씨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던 탐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축소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성씨는 그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재판의 범죄 사실은 각각 다르나, 피고인 모두 탐씨와 연관돼 있다. 이에 이날 탐씨는 두 재판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재판의 시간이 겹쳐 탐씨는 A 경감에 대해서만 증인대에 섰다. 탐씨는 자신이 수사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탁을 받은 성씨가 장씨를 통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장씨는 지난 5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A 경감의 변호인 측은 탐씨에 대한 심문을 통해 수사 정보를 누설할 이유도, '유출 창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A 경감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재개되며 이날 증인으

론 성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탐씨의 출석이 무산되면서 B 경정과 성씨에 대한 재판에선 또다른 브로커 전모(64)씨에 대한 증인 심문만이 이뤄졌다. 이날 전씨는 B 경정과 성씨가 전화 통화 등 '접점'이 있는 것은 맞으나, 수사 무마 등 '청탁'에 관해선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씨와 달리 B 경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 재판부는 인과관계에 있는 탐씨 등을 오는 9월 13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두 재판 모두 증인 심문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과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성영 부장판사)에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탐씨에 대한 재판도 열려 증인 심문이 이어졌다. 다만, 탐씨가 다른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일정 시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안재영 기자



영양 듬뿍 담은 삼계탕 나눠요. 중북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동행정복지센터직원,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삼계탕을 배식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170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업 확장 중 자금난 빠져... "값을 의지·능력 있었다" 주장

170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5·한의사)씨와 공범 B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챌 혐의로 기소됐

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변제 능력이 없는 A씨가 '19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으로 갚겠다'고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반복해서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느라 포괄적 금지 명령

이 내려진 탓이었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9월 25일 열기로 했다. 청연메디칼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명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 19일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안재영 기자

'금품 수수' 빚고을 SPC 전 대표 항소심도 실형

'지주력 인허가' 명목 14억여원 받아...법원, 징역 3년 원심 유지

광주 남구와 북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빚고을 SPC)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빚고을 SPC 전 대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명령한 추징금 7억 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과도했다고 판시

하며 4억 4천 6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대행사에 접근,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허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며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

게 적용한 혐의 중 '청탁 명목 용역 계약 체결'은 무죄로 판단해 추징금은 7억 7천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각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수수한 금액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 측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면서도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 A씨가 범죄 수익 7억 7천만 원 전액을 사용했음이 입증되지 않아 추징금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檢, 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

사 서영배)에 따르면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둔 지난 2월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 총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관련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고흥 주차장 차량 화재 현장서 시신 발견

고흥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난 가운데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고흥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

전 8시 19분께 고흥군 도화면 한 공원의 주차장 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6분여 만인

오전 9시 5분께 불을 모두 끄고 차량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당국도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흥=최복환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